

# 결혼, 성역할 및 사망력 : 한 · 미 비교 연구

## Marriage, Sex Role, and Mortality : A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전북대학교

강사: 朴京愛

Chonbuk National University

Instructor : *Kyung Ae Park*

### 목 차

I. 서론	2. 결혼의 “선택” 기능 평가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3. “수단/표출적” 성역할 가설
III. 자료, 방법 및 결과	채택
IV. 논의	V. 요약 및 결론
1. 한국과 미국의 공통점과 차이점	참고문헌

### =ABSTRACT=

Previous studies indicate that unmarried persons are subject to higher mortality than the married, and that the differentials are more marked for males than for females. There are two major approaches to explaining the marital status differentials in mortality : selection function and protection function of marriage.

Following protection function, this study develops the new “instrumental/expressive sex-role” hypothesis in order to explain why marriage protects males more against death. The hypothesis expects that male’s instrumental role and female’s expressive role have direct effect as well as indirect effect through social integration on sex differential mortality by marital status. For the hypothesis testing, Korea and U.S. vital statistics and census data are used to compute age-specific, age-adjusted mortality rates and their ratios for persons in different marital statu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1) For both Korea and U.S., being married is more advantageous to males than females, and being widowed, divorced, and separated is more disadvantageous to males, while being never-married is more disadvantageous to females. 2) For Korea, the never married men and women have the highest mortality rates. 3) For U.S., the never married women have the highest mortality rate, while the divorced, separated, and widowed men have

the highest mortality rate. For both Korea and U. S. data, selection function is rejected, but instrumental/expressive sex-role hypothesis succeeds in accounting for the sex and marital status differentials in mortality.

## I. 서 론

사망력은 생활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되어 왔는데, 대부분의 사회에서 거의 모든 연령에 걸쳐 남자는 여자보다 사망률이 높고, 이러한 남녀간 사망력의 차이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 커지고 있어(Levitan and Cohen, 1985), 남녀의 생활의 질에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성별 사망력의 격차를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에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Hazzard, 1985), 사회적 행위나 사회적 구조가 남녀의 사망력 차이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는 연구가 많다(Harrison, 1978; Nathanson, 1984; Park and Clifford, 1989; Waldron, 1976, 1983). 본고에서는 사회적인 환경요인 중에서도 특히 결혼이 남녀의 사망력 격차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한국에는 혼인과 사망력을 연결짓는 이론적 및 실증적 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일찌기 프랑스의 Durkheim(1952)은 자살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함으로써 결혼과 사망력의 관계에 관한 연구의 기초를 닦았다. Durkheim은 독신자들보다 유배우자들의 자살률이 낮은 원인을 결혼을 통해 형성되는 가족환경이 사회통합을 증대시킴으로써 개인을 자살로부터 보호한다는 결혼의 “보호” 기능에서 찾았다. 같은 맥락에서 Gove(1973)는 미국의 유배우자와 독신자 사이의 사망력 차이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큰 사실은 결혼의 역할과 관련된 개인의 심리적 상태가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탓이라고 설명했고, Kobrin and Herdershot(1977) 및 Danigelis and Pope(1979)가 결혼이 남성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지만 결혼으로 수반되는 자녀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줌을 강조하여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캐나다의 사망력을 분석한 연구도(Trovato and Lauris, 1989) 결혼은 사회통합 기능에 의해 보호 작용을 하고 여

성보다는 남성을 더 보호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일부 연구들은 혼인상태별 사망력 차이가 결혼의 “선택” 기능에 관련되어 있다고 제안한다(e.g. Carter and Glick, 1976; Hu and Goldman, 1990; Retherford, 1975; Sheps, 1961; Zalokar, 1960). 이들의 입장은 그 강조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그 견해를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결혼이라는 배우자 선택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결혼(초혼 또는 재혼)을 안할 또는 못할 확률이 크며, 남성들이 구혼 과정과 결혼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므로 남성이 어떠한 장애를 가질 경우 여성이 장애를 가질 경우보다 결혼하기가 더 어렵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결혼의 “보호” 기능이나 “선택” 기능 어느 입장을 취하든 결혼이 남녀의 사망률을 낮추는데 공헌을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왜 여성보다는 남성의 사망력을 더 감소시켜 주는 지에 관해서는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험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설명은 궁핍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 사망에 관한 한 왜 남성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고, 한국과 미국의 자료를 통해서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혼인상태 및 성별 사망력의 차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현행 혼인제도를 재검토하게 함은 물론 개인의 혼인에 관한 의사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의의도 찾을 수 있다.

##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현대의 결혼에서는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나 양성성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결혼과 가족관계에서 남성과 여성에게는 전통적으로 상이한 역할이 부여되었다. 남편에게는 경제적 재원자로

서의 수단적 역할이, 부인에게는 주부로서의 표출적 기능이 강조되었다(Parsons and Bales, 1955).

경제적 재원자로서의 성공이라는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남편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댓가를 치룬다. 정신적인 면에서 볼 때, 실업은 유배우 여성보다 유배우 남성을 우울증에 더 많이 빠지게 한다(Radloff, 1975).

육체적인 면에서 볼 때 여성들보다 남성들에게서 월등히 많은 사망원인은 순환기계질환인데, 순환기계질환은 남성의 흡연과 음주 행위 이외에도 Type A 행동양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Park and Clifford, 1989).

Type A 행동 특성은 강한 성취동기, 타자에 대한 경쟁적, 공격적 및 혐오적인 태도, 시간에 쫓기는 “서두르는 병”으로 특징지워 지며(Jenkins, 1976 ; Friedman and Rosenman, 1974 ; Waldron, 1976 and 1983), 이 Type A 행동 특성은 전통적인 여성의 표출적 역할과 여성다운보다는 남성의 수단적 역할 및 남성다운과 더 많은 조화를 이룬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더 많이 직업전선에 종사하고, 남성의 직업이 여성의 직업보다 산업공해를 비롯한 각종 사고와 위험에 더 많이 직면하게 한다. 사고사는 물론, 이러한 직업적 위험이 끼치는 누적적인 효과가 사망기록에서는 만성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나타나는데, 만성병 역시 남성들의 높은 사망률의 원인이 된다(Verbrugge, 1976 ; Gove, 1973).

전통적인 주부의 역할과 사망력의 관계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없지만, 많은 수의 연구들이(e.g., 김경아, 이정우, 1990) 주부의 역할이 스트레스의 원천임을 지적하고 있어 사망력에 대한 간접적인 시사를 한다. Gove and Tudor(1973)는 주부의 역할이 가족의 사람들과의 접촉을 제한시키는 지루한 것임을 강조하고, Bernard(1973) 역시 결혼한 남성은 결혼과 직업 두 곳에서 만족을 얻는 반면에, 결혼한 여성은 가족에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유배우 여성이 직장을 가진 경우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다가 가정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 때문에 이중부담의 스트레스가 많음을 지적했다. 유배우 남성보다 유배우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정신질환 역시 유배우 여성의 역할긴장으로 설명되었다(e.g., Gove, 1972 ; Radloff, 1975). 직장가정의 역할 갈등으로 유배우의 직장여성이 미혼의 직장여성 또는 주부보다 더 많은 알코올을 섭취한다는 보고도 있고(Johnson, 1982), 여성의 취업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종합적인 연구도 있다(Rosenfield, 1989). 더욱이 남성의 사망에 대한 직업적 위험이 심리적 스트레스로서 배우자에게 전달된다는 경험적 연구 결과로부터(Fletcher, 1983) 여성의 표출적 역할은 남성의 수단적 역할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남성다운과 여성다운이 사망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자. 남성다운 특성은 지배, 독립, 힘, 공격성, 성취 등을 강조하여 수단적 역할 행동 특성과 일치하고, 여성다운 특성은 표출적 역할 행동과 조화를 이루는 양육적, 정서적, 온화함, 감수성 등을 내포한다(e.g., 장하경, 서병숙, 1991). 이와 같은 성역할 및 성별 특성의 기대 때문에 남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양육적이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반면에(Gilligan, 1982),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자신을 잘 노출하지 않고 감정입적이 못하며 사랑에 자신이 없는데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건강에 해롭다고 지적한다(Jourad, 1974). 이는 표출적 역할과 특성보다는 수단적 역할과 특성이 건강에 더 좋지 못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망력에 대한 결혼의 “보호” 기능 전통을 쫓아, 결혼에 수반되는 수단적 역할(instrumental role)과 표출적 역할(expressive role)이라는 성역할이 남녀의 사망력 차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이라는 가족관계를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제안한다. 따라서, 수단적 역할과 특성을 지닌 남성이 표출적 역할과 특성을 지닌 여성보다 더 높은 사망률을 보여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으로 인하여 남녀가 수단적 역할 및 특성과 표출적 역할 및 특성을 상호 보상받을 때, 남성에게 더 큰 이익이 올 것이며, 역으로 결혼이 해체될 경우 남성에게 더 불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미혼상태에서는 양성의 특성과 역할이 상호

보완해 주지 못하므로 유배우자보다 사망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 III. 자료, 방법 및 결과

미국의 자료는 North Carolina Vital Statistics Data Files, 1982에서 1980년 개개인의 사망신고 자료를 구했고, 인구 통계치는 1980 Census of Population, North Carolina, U.S.A.에서 수집했다. 인종과 사회계층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백인만이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연령표준화된 사망률이(age-standardized or age-adjusted mortality rate) 1980년도 N.C. 전체 백인의 인구구조를 표준인구로 사용하여 직접방법을 써서 계산되었다(Shyrock et al., 1975).

이외에도 연령, 성 및 혼인상태별 사망률과 연령표준화된 사망률을 이용하여 비교집단의 비율이 계산되었다.

혼인상태가 사망력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주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혼인상태를 미혼, 유배우, 기타

세 범주로만 분류했는데, 기타는 이혼, 사별 및 별거를 포함한다. 이혼, 사별 및 별거를 통합시킨 이유는 이들의 수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사망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일 뿐 아니라 이들의 사망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자료는 센서스나 인구동태통계에 본 연구에 합당한 혼인상태별 사망이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덕중과 김태현(1989)의 연구에서 기본 자료를 구해 재구성했다.

표 1, 2에 제시된 미국 자료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모든 연령 및 혼인상태별 집단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사망률이 높다.
- 2) 남성과 여성 모두 모든 연령에 걸쳐 유배우자들의 사망률이 가장 낮다.
- 3) 모든 연령에 걸쳐 남성들은 이혼, 사별 및 별거 상태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여 주는 반면에, 여성들은 연령을 통제했을 때 미혼 상태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여 준다.
- 4) 미혼 상태에서 경험하게 될 사망력에서의

표 1. 혼인상태, 연령 및 성별 사망률, 노스캐롤라이나, 백인, 1980

혼인상태		20~29	30~39	40~49	50~59	60~64	65+	연령표준화
남성	미 혼	2.47	4.15	9.45	25.65	38.68	84.00	22.84
	유배우	1.48	1.69	4.06	11.69	23.22	57.29	13.77
	기 타	4.18	8.07	14.54	28.30	49.86	106.04	29.51
여성	미 혼	.82	2.75	6.45	8.10	14.19	48.61	11.65
	유배우	.45	.81	1.86	5.20	9.53	24.07	5.81
	기 타	.68	2.40	3.44	8.13	14.22	43.78	10.32

자료: 노스캐롤라이나편, 미국 인구동태통계 및 센서스.

주: (1) 사망률은 인구 1,000 당 사망 수.

(2) 기타는 사별, 이혼 및 별거를 내포함.

표 2. 혼인상태, 연령 및 성별 사망률의 비율, 노스캐롤라이나, 백인, 1980

혼인상태		20~29	30~39	40~49	50~59	60~64	65+	연령표준화
남성	미 혼	1.67	2.46	2.33	2.19	1.67	1.47	1.66
	유배우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기 타	2.82	4.78	3.58	2.42	2.15	1.85	2.14
여성	미 혼	1.82	3.40	3.47	1.56	1.49	2.02	2.00
	유배우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기 타	1.51	2.96	1.85	1.56	1.49	1.82	1.78

자료: 노스캐롤라이나편, 미국 인구동태통계 및 센서스.

주: 기타는 사별, 이혼 및 별거를 내포함.

불이익이 연령을 통제했을 때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크다.

5) 모든 연령에 걸쳐 이혼, 사별 및 별거 상태에서 경험하게 될 사망력에서의 불이익이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크다.

표 3에 제시된 한국 자료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6) 남성과 여성 모두 모든 연령에 걸쳐 유배우자들의 사망률이 가장 낮다.

7) 35세 이전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사별, 이혼 및 별거자들의 사망률이 가장 높다.

8) 35세 이후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미혼자들의 사망률이 가장 높다.

9) 모든 연령에 걸쳐 미혼자들이 경험하는 사망력에서의 불이익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크다.

10) 모든 연령에 걸쳐 이혼, 사별 및 별거자들이 경험하는 사망력에서의 불이익이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크다.

#### IV. 논 의

##### 1. 한국과 미국의 공통점과 차이점

본 연구는 결혼이 왜 남성의 사망력을 더 감소시켜 주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결혼의 “보호” 기능 전통에서 새로운 “수단적/표출적” 성역할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부차적으로 사망력에 대한 결혼의 “선택” 기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한국과 미국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특성은 유배

우자들이 가장 낮은 사망률을 보여 주며(결과 2와 6), 이혼이나 사별 또는 별거 상태에서 나타나는 불이익이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크다는 점이다(결과 5와 10). 특히 주목할 점은 이혼, 사별 및 별거 상태가 사망력에 주는 악영향은 남녀 모두 미국보다 한국에서 훨씬 크다(표 2와 3의 비율의 비교). 이는 한국의 결혼이 미국의 결혼보다 남성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은 미혼상태가 사망력에 미치는 영향으로 한국에서는 대부분이 초혼을 완료했다고 볼 수 있는 35세 이후의 남녀 모두에게 미혼이 사망력에 가장 커다란 악영향을 주고(결과 8), 35세 이전에는 미혼이 사별, 이혼 및 별거보다는 유리하다(결과 7). 미국에서는 미혼이 여성에게만 가장 불리한 영향을 주고(결과 4), 남성에게는 사별, 이혼 및 별거가 가장 해롭다(결과 3). 더욱이 유배우자들과 비교해 볼 때 미혼임으로써 경험하게 될 불이익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압도적으로 큰 것이 한국의 결혼인데 반해서(결과 9), 미국의 미혼자들에게는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불이익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클 때는 연령에 따라 다르다(결과 4), 그 차이도 무시할 만하다(표 2의 비율의 비교). 결혼이 남녀 모두에게 보편화된 한국에서는 결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망력 차원에서 불리하게 되지만, 결혼이 덜 보편화된 미국의 경우는 미혼 상태에서도 크게 불리하지 않고 특히 남자는 결혼해체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하기보다는 미혼이 더 바람직함을 보여 준다.

종합해 보면, 한국이나 미국 모두에서 미혼이나,

표 3. 혼인상태, 연령 및 성별 사망률의 비율, 한국, 1979~1981

혼인상태		25~34	35~44	45~54	55~64
남성	미 혼	2.76	9.94	12.30	10.80
	유배우	1.00	1.00	1.00	1.00
	기 타	11.38	6.24	4.30	2.95
여성	미 혼	7.67	33.49	43.40	35.87
	유배우	1.00	1.00	1.00	1.00
	기 타	8.96	3.32	1.81	1.28

자료 : 한국 인구동태통계 및 인구 센서스.

윤덕중과 김태현(1989)의 표 2에서 재구성.

주 : 기타는 사별, 이혼 및 별거를 내포함.

이혼, 사별 및 별거 상태는 남녀 모두의 사망력을 높여 준다. 미혼은 여성에게 더 해롭게 작용하지만, 이혼, 사별 및 별거는 남성의 사망력에 더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더욱이 혼인상태가 사망력에 주는 영향이 미국보다 한국에게서 압도적으로 크다. 이 결과는 결혼이 사망력에 주는 “보호” 기능과 “선택” 기능을 평가하는데 부분적으로나마 흥미로운 자료를 제공한다.

### 2. 결혼의 “선택” 기능 평가

결혼의 “선택” 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육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독신자들이 높은 사망률을 보여 준다고 생각하며, 특히 남성들이 구혼이나 결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남성일수록 문제가 있는 여성보다 결혼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 결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선택가설을 기각한다.

첫째, 한국의 자료는 35세 이후에서 남녀 모두 똑같이 결혼을 한 번도 안한 또는 못한 미혼자가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여 줌으로써(결과 8) “선택” 가설을 지지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자료는 이 가설을 기각하는데, 미혼 여성들은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여 주는 경향이 있지만, 미혼 남성은 결혼한 적이 있는 이혼, 사별 및 별거 남성들보다 낮은 사망률을 보여 준다(결과 3). “선택” 가설 입장에서만 해석한다면, 건강한 남자라서 결혼을 할 수 있었던 남자가 건강하지 못해서 결혼을 못했던 남성들보다 더 높은 사망률을 보여 주기 때문에 역설적이다. 이는 혼인상태의 변화 과정에서 사망력에 영향을 주는 집단 역학이 작용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미혼의 효과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클 것으로 “선택”가설은 예상한다. 그러나 한국에서조차 미혼효과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크고(결과 9), 미국의 경우에도 연령을 통제한 미혼의 악영향이 여성에게 더 크다(결과 4). 마지막으로 건강하지 못한 자들이 결혼하지 못하고 일찍 죽는다면, 연령이 많아질수록 건강하지 못한 미혼자들이 제 거됨으로 인해서 혼인상태별 사망력이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혼인상태별 사망력 차이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남녀 모두에게서 증가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는 연령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없다. 따라서 선택 가설의 일부분은 미국보다는 한국의 사망력 유형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지만, 미국과 한국 자료 모두에 의해서 지지를 얻지 못했다.

### 3. “수단적/표출적” 성역할 가설 채택

결혼의 보호 기능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단적/표출적 성역할” 가설에 의해서 사망유형을 설명해 보자. 먼저 혼인상태에 관계없이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사망률을 보여 주는 것은(결과 1) 남성에게 부여되는 수단적 역할과 특성이 여성에게 부여되는 표출적 역할과 특성보다 건강에 직접적으로 더 해롭기 때문이다. 남녀 모두에게서 유배우자들이 독신자들보다 낮은 사망률을 가지는 것은(결과 2와 6) 결혼의 수단적 역할과 표출적 역할 또는 수단적 특성과 표출적 특성이 상호보완적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이 상호보완적 작용에서 경제적 재원자로서의 수단적 역할을 강조하는 남편은 부인으로부터 표출적 도움을 받지만, 부인에게는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중심으로한 표출적 역할이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고, 경제행위에 종사할 경우에도 남편으로부터 받는 표출적 도움이 부족한 채 가정과 직업의 역할 갈등에 처하므로 남편이 부인보다 사망력으로부터 더 많은 보호를 받는다고 사료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결혼이 해체되고 사별이나 이혼 또는 별거 상태에 있을 때, 여성보다 남성이 사망력에서 훨씬 더 불리하다(결과 5와 10).

한국과 미국에서 미혼남성들은 아내로부터 얻는 표출적 지지가 없고, 미혼여성 역시 남편의 수단적 지지가 없으므로 인해서 수단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유배우자들보다 사망에 관한 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미혼 여성들이 사별, 이혼 및 별거 여성들보다 조금 높은 사망률을 보여 주는 것은(결과 3과 8) 사별, 이혼 및 별거 여성들도 미혼여성들과 똑같이 수단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대개는 위자료나 상속으로

수단적 역할의 압박이 비교적 적을 뿐 아니라 자녀들로부터 표출적 보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결혼해체로 인한 사회적 통합의 악영향이 같은 처지의 남성이나 미혼여성보다 적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한국과 미국에서 미혼여성들이 미혼남성들보다 사망력에서 더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결과 4와 9) 미혼여성들이 수행해야 할 수단적 역할의 위험을 경각시켜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직업시장의 경쟁에서 어려운 위치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미혼남성보다 미혼여성이 결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게 됨을 의미한다.

미국보다 한국에서 혼인상태별 사망력의 차이가 커다란 것은 결혼의 보편성 때문에 미혼이나 이혼 등의 다양한 삶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회적 구조 탓인 것 같다. 한국에서 35세 이후의 남녀 모두 미혼자가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여 주는 것도(결과 8) 한국에서는 결혼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미혼자들에게 오는 사회적 압박도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해체가 쉽게 용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결혼이 해체된 가정이 외형적으로는 결혼을 유지시키고 있는 까닭에 유배우자 상태와 통계적으로 엇비슷한 사망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 V. 요약 및 결론

결혼과 사망력의 관계에서 유배우자들이 독신자들보다 사망률이 낮다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어 왔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결혼이 사회통합을 통해서 사망력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보호” 기능과 결혼이 건강한 사람들만을 골라내는 작업을 한다는 “선택” 기능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결혼이 왜 여성보다 남성을 사망력으로부터 더 보호해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적인 증거를 부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설명은 시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의 보호 기능 차원에서 일명 “수단적/표출적 성역할”이라 부르는 새로운 가설을 설

정한다.

“성역할” 가설은 결혼에 수반되는 남성의 수단적 역할 및 특성과 여성의 표출적 역할과 특성이 성별 사망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사회적 통합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다. 수단적 역할보다 표출적 역할이 사회통합에 더 기여하고, 수단적 역할이 표출적 역할과 특성보다 사망력에 더 해롭기 때문에 결혼은 남성을 사망으로부터 더 보호해 주고, 결혼해체는 남성에게 더 치명적이며, 미혼상태는 유배우상태보다는 불리할 것으로 예상한다.

“수단적/표출적 성역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1980년 센서스 및 인구동태통계를 사용했다. 종래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사망 자료의 정보 부족과 제한점으로 인하여 결혼의 “보호” 기능이나 “선택” 기능의 상대적 중요성을 명확히 평가하기에는 부족했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사망력에 대한 결혼의 선택 기능을 지지하지 않았다. 반면에, 결혼의 “보호” 기능 중에서도 “수단적/표출적 성역할” 가설에 의해서 연구 결과는 모순없이 설명되었다. 즉, 수단적 역할을 담당하는 남성의 사망률이 혼인상태에 관계없이 여성의 사망률보다 높았고,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결혼은 남성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고, 결혼의 해체는 남성에게 더 많은 불이익을 가져다 주며, 미혼자들은 유배우자들보다 불리한 처지에 있다. 미국과 한국 모두 혼인상태에 따른 사망력의 차이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망력에 관한 한 남성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도움을 덜 주는 유배우 상태로부터 벗어나도 남성보다 여성은 손해보는 것이 적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역으로 결혼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던 남성들은 그 상태에서 벗어날 때 여성들보다 심한 충격을 겪게 된다고 사료된다.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은 혼인상태가 사망력에 주는 영향이 미국보다 한국에서 월등하게 크다는 점과, 한국의 미혼자들은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여 주는데 반해서 미국에서는 여성 미혼자들만이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여 주는 경향이 있지만 다른 독신자들과의 차이가 경미해서 무시해도 된다는 점

이다. 이는 결혼이 어느 정도 보편화되었느냐에 따라 사회가 미혼이나 결혼해체를 수용하는 못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해석된다.

Robinson(1950)이 경고했듯이, 거시적 현상과 미시적 현상을 연결짓는 추론 과정에 많은 주의가 요구되지만, 본 연구 결과는 전통적인 성역할을 고수하는 것은 남성에게만 더 큰 이익을 줌으로써 결혼이 성별 사망력의 격차를 감소시킬지언정 성별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메카니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성역할이 양성성의 방향으로, 즉 남녀의 엄격한 수단적/표출적 역할의 구분이 철폐되고, 남성은 좀 더 표출적 특성을, 여성은 좀 더 수단적 특성을 수용한다면, 남녀 모두의 사망력 수준을 낮출 뿐만 아니라 남녀의 사망력 격차까지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참고문헌

- 1) 김경아 · 이정우(1990). "기혼여성이 지각한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수준 및 관련변인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101-117.
- 2) 윤덕중 · 김태현(1989). "사회, 경제적 요인별 차별사망력의 변화: 1970~1986". *한국인구학회지* 12(2), 1-21.
- 3) 장하경 · 서병숙(1991). "성역할 정체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4), 167-179.
- 4) Bernard, Jessie.(1973). *The Future of Marriage*, New York : Bantam Books.
- 5) Carter, H. & Glick, P.(1976). *Marriage and Divorce : A Social and Economic Study*(rev. ed.),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 6) Danigelis, N. & Pope, W.(1979). "Durkheim's Theory of Suicide Applied to the Family : An Empirical Test". *Social Forces* 57(4), 1081-1106.
- 7) Durkheim, Emile, *Suicide*(1952). New York : The Free Press.
- 8) Fletcher, B.C.(1983). "Marital Relationships as a Cause of Death : An Analysis of Occupational Mortality and the Hidden Consequences of Marriage-Some U.K. Data". *Human Relations* 36(2), 123-134.
- 9) Friedman, M. & Roseman, R.(1974). *Type A Behavior and Your Heart*, New York : Knopf.
- 10) Gilligan, Carol.(1982). *In a Different Voice :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 11) Gove, Walter.(1972).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Roles, Marital Status, and Mental Illness". *Social Forces* 51, 34-44.
- 12) Gove, Walter.(1973). "Sex, Marital Status, and Mortal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9, 45-67.
- 13) Gove, W. & Tudor, J.(1973). "Adult Sex Roles and Mental Ill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812-835.
- 14) Guttentag, M. & Secord, P.(1983). *Too Many Women ? : Ratio Question*,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 Inc.
- 15) Harrison, J.(1978). "Warning : The Male Sex Role May Be Dangerous to Your Health". *Journal of Social Issues* 34, 65-86.
- 16) Hazzard, W.R.(1985). "The Sex Differential in Longevity," pp.72-81, in Andres, E., L. Bierman, and W.R. Hazzard(eds.), *Principles of Geriatric Medicine*, New York : McGraw-Hill.
- 17) Hu, Yuanreng, & Goldman, N.(1990). "Mortality Differences by Marital Status : An International Comparison". *Demography* 27(2), 233-250.
- 18) Jenkins, C.D.(1976). "Recent Evidence Supporting Psychologic and Social Risk Factors for Coronary Diseas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94, 987-994 and 1033-1038.
- 19) Johnson, P.B.(1982). "Sex Differences, Women's Roles and Alcohol Use : Preliminary National Data". *Journal of Social Issues* 38, 93-116.
- 20) Jourard, S.M.(1974). "Some Lethal Aspects of the Male Role". pp.21-29, in Pleck, J.H. and J. Sawyer (eds.), *Men and Masculinity*, New York : Prentice Hall.
- 21) Kobrin, F. & Hendershot, G.(1977). "Do Family Ties Reduce Mortality ?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1966~1968".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737-745.
- 22) Kraus, A. & Lilienfeld, A.(1959). "Some Epidemiologic Aspects of the High Mortality Rate in the Young Widowed Group". *Journal of Chronic*



- Diseases* 10(Sept.), 207-217.
- 23) Levita, Uri and J. Cohen.(1985) "Gender Differences in Life Expectancy among Kibbutz Member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1(5), 545-551.
- 24) Nathanson, C.A.(1984). "Sex Differences in Mortalit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0, 191-213.
- 25) Park, K.A. & Clifford, W.B.(1989). "Sex Differentials in Cardiovascular Mortality".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9(7), 869-876.
- 26) Parsons, T. & R.F. Bales.(1955).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New York : The Free Press.
- 27) Radloff, Lenore.(1975). "Sex Differences in Depression : The Effects of Occupation and Marital Status". *Sex Roles* 1, 249-265.
- 28) Retherford, R.D.(1975). *The Changing Sex Differential in Mortality*, Westport, Conn. : Greenwood Press.
- 29) Robinson, W. S.(1950). "Ecological Correlations and the Behavior of Individual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5, 351-357.
- 30) Rosenfield, Sarah.(1989). "The Effects of Women's Employment : Personal Control and Sex Differences in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0(March), 77-91.
- 31) Sheps, Mindel.(1961). "Marriage and Mortalit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51, 547-555.
- 32) Shyrock, H., Siegal, J. et al.(1975). *The Methods and Materials of Demography*, Washington : U.S. G.P.O.
- 33) Trovato, F. & G. Lauris.(1989). "Marital Status and Mortality in Canada : 1951~1981".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907-922.
- 34) Verbrugge, L.M.(1976). "Sex Differentials in Morbidity and Mortality in the United States". *Social Biology* 23, 275-296.
- 35) Waldron, I.W.(1976). "Why Do Women Live Longer than Men?".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9, 349-362.
- 36) Waldron, I.W.(1983). "Sex Differences in Human Mortality : The Role of Genetic Factor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7, 321-333.
- 37) Zalokar, J.B.(1960). "Marital Status and Major Causes of Death in Women". *Journal of Chronic Diseases* 11, 50-60.